

비장에 발생한 염증성 가성종양 1예 (A case of Inflammatory Pseudotumor of the Spleen)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고명범 · 조영석 · 김성수 · 채현석 · 한석원 · 이창돈 · 최규용 · 정인식 · 선희식

서론: 염증성 가성종양은 조직학적으로 비특이적인 염증세포와 간질의 만성 염증성 조직으로 구성된 양성질환으로 주로 호흡기, 간 등의 장기에서 보고되었으나 비장에서 관찰된 경우는 드물다. 지금까지 보고된 증례들의 경우 비특이적인 증상의 비장내 단일 종괴로 발견되며 방사선검사에서 비장의 림프종이나 악성병변 등과의 감별이 어려운 질환으로서 대부분 수술적인 절제 후에 조직진단을 하게 되며, 이후 재발없는 양호한 예후를 보이게 된다. 조직소견은 림프구, 형질세포, 포말 조직구와 방추형 세포 등의 염증세포를 보이며, 병인은 감염, 출혈 및 자가면역 질환들이 연관된다는 보고가 있으나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 상태이다. 저자들은 비장에 생긴 염증성 가성종양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35세 여자환자가 수개월간의 간헐적 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초음파에서 4 cm 크기의 비장종괴가 보여 입원하였다. 과거력에서 5년 전 제왕절개술 받은 것 외에는 특이소견 없었으며, 가족력에 특이사항 없었다. 내원 당시 혈압은 120/70 mmHg, 맥박 수는 분당 78회, 호흡수는 분당 16회 및 체온은 36.4도였고, 의식은 명료하였다. 두경부, 흉부진찰에서 특이소견 없었다. 복부진찰시에 편평하고 부드러웠고 압통은 없었다. 간, 비장등은 촉진되지 않았다. 내원 시 말초혈액 검사상 백혈구 $6,400/\text{mm}^3$, 혈색소 11.0 g/dL, 헤마토크릿 31.8%, 혈소판 $250,000/\text{mm}^3$ 이었으며 혈청 전해질 검사와 생화학 검사 및 소변검사서 정상소견을 보였다.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비균질의 조영증가를 보이는 $6 \times 4 \times 4$ cm의 원형종괴가 관찰되었고 주사침 생검에서 임프구, 형질세포 및 조직구 등의 염증세포가 관찰되어 양성병변의 소견보이나, 기타 증식성 림프종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이 어려워 비장절제를 시행하였다. 수술시 비장은 주위 장막에 유착소견 보였고 간, 신장, 임파절 등은 특이소견 없었다. 비장의 무게는 230 g, 크기는 $15 \times 8 \times 5$ cm이었고 비장 단면에서 출혈의 괴사성 중심을 갖는 회색 빛의 $6 \times 5 \times 5$ cm 크기의 원형종괴가 주위와 경계를 이루며 관찰되었다. 이에 대한 현미경소견에서 저배율에서 육아종성 조직 및 섬유화 소견을 보였고, 고배율에서 염증세포와 간질의 만성 염증성 조직으로 보이는 양성병변으로서 염증성 가성종양으로 판명되었다. 수술 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여, 3개월 후 초음파검사서 질환 재발 등의 소견 없고, 환자는 약물치료 없이 건강하게 외래 추적경과 관찰 중이다.

색인단어: Inflammatory pseudotumor, Spleen